| 보도자료 |
| --- |
| 본 자료는 11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동 향 분 석 실 장 (02) 3299-3205
강두용(거시) 010-2466-1057
성장동력산업센터장 (02) 3299-3290
장윤종(산업) 010-5242-9063

# 2012년 경제·산업전망

2011. 11. 24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 목 차 >

<요 약> ····· i

Ⅰ. 거시경제 전망 ·····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 1
2. 대외여건 전망 ····· 4
3. 2012년 국내경제 전망 ····· 10

Ⅱ. 주요산업 전망 ····· 24

1. 2011년 동향 ····· 24
2. 2012년 전망 ····· 26
3. 정책적 시사점 ····· 39
4. 주요 산업별 2012년 전망 요약 ····· 42

# <요 약>

## Ⅰ. 거시경제 전망

### □ 현 경기 판단 : 회복세 둔화 추이

○ 국내 경기는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

- 상반기중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던 수출이 선진권 진의 향이 가시화되 서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

- 내수는 건설투자의 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

○ 선행지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회복세 둔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세계경제 : 선진권 부진으로 성장 둔화

○ 세계경제는 유로권 재정위기의 향과 선진권 전반의 재정불안에 따른 긴축선회 등으로 선진권 진이 지속되고 신흥권도 성장세가 둔화되 서 4% 내외의 성장을 예상

- 유로권 재정위기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서 상당기간 선진권 경기에 정적 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은 최근의 성장둔화 추세가 2012년중에도 완만하게 이어질 전망

□ 국제유가 및 환율 : 유가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 예상

○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라 보합세 내지 소폭 하락을 보일 전망

○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기조가 이어질 전망

□ 2012년 경제성장 : 연간 GDP 3.7% 성장 전망

○ 국내경제는 2012년 연중 다소 진한 모습을 보이 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문별로는 세계경제 둔화의 향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내수는 전년(2011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민간소비는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NI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외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의 향으로 투자는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 유로권 재정위기, 선진권 경기 진 등 대외 문 불안이 가장 큰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가계 채 담이 주요 하방 위험요인

- 유로권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전개과정에서 심각한 금융불안을 유발할 경우 세계경기 급락과 더불어 국내에도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

□ **민간소비 :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가로 3%내외 증가**

○ 민간소비는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GNI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나 고용 회복세 둔화, 높은 가계 채 담 등이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서 전년보다 약간 높은 3% 내외의 증가를 보일 전망

□ **투자 : 설비투자는 증가세 둔화, 건설투자는 증가세 전환되나 낮은 증가**

○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둔화, 세계경제 불안 재연 등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건설투자는 전년의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진으로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 **수출입 : 연간 수출증가율 7% 내외, 무역흑자 240억 달러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를 예상

○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를 전망

○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 서 2012년 무역흑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 2011년 | | | 2012년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실질GDP | 3.8<br><1.1> | 3.6<br><0.8> | 3.7 | 3.4<br><0.9> | 3.9<br><1.0> | 3.7 |
| 민간소비 | 2.9 | 2.4 | 2.7 | 2.9 | 3.1 | 3.0 |
| 건설투자 | -9.0 | -1.7 | -5.2 | 3.2 | 1.2 | 2.1 |
| 설비투자 | 9.4 | 2.8 | 5.9 | 3.5 | 6.4 | 4.9 |
| 통관기준 수출(억달러) | 2,737 | 2,824 | 5,561 | 2,910 | 3,045 | 5,955 |
| (%) | (23.7) | (15.2) | (19.2) | (6.3) | (7.8) | (7.1) |
| 통관기준 수입(억달러) | 2,581 | 2,685 | 5,266 | 2,781 | 2,934 | 5,715 |
| (%) | (26.7) | (21.3) | (23.9) | (7.7) | (9.3) | (8.5) |
| 무역수지 | 156 | 139 | 295 | 129 | 111 | 240 |
| 경상수지 | 81 | 124 | 205 | 64 | 66 | 130 |

주 : < >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임.

## Ⅱ. 산업별 전망

### □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

○ 고용불안, 가계소득 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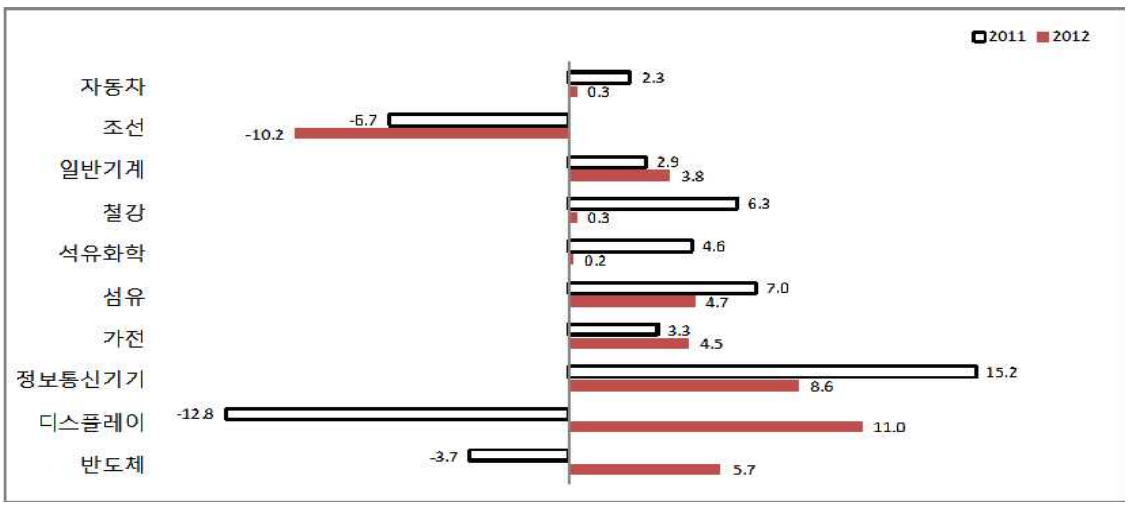
○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

○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양호하나, 자동차와 조선은 진할 것으로 전망

○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진,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구매력 둔화 등으로 0~5%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그림 1>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조선 급락으로 인해 6.5% 증가에 그칠 전망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신흥시장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6.5% 증가에 그치는 수준. 다만, 급락세가 예상되는 조선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8.9% 시현

○ 2012년의 수출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산업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  서 주도해나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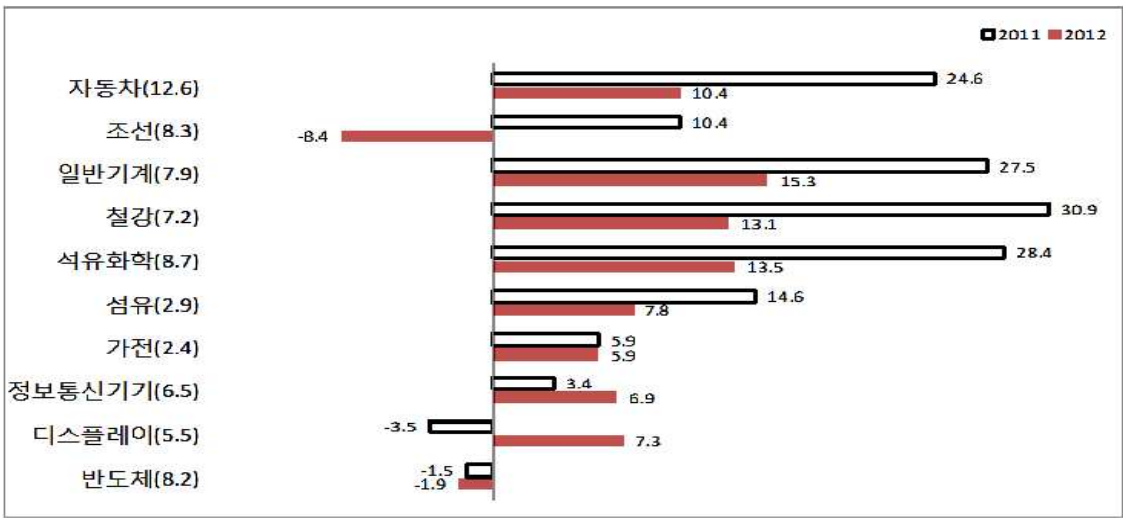
○ 소재산업군은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유지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12% 증가하  서 순항기조를 유지

○ 기계산업군은 신흥국 수요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호조이나, 조선은 건조선박 인도 불투명하여 8% 이상 감소할 전망

○ IT산업군 수출은 런던 올림픽 특수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3.5% 증가하  서 2011년의  진에서 회복될 전망

**<그림 2> 2012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은 2012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 □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

○ 국내생산은 내수 회복세 미약, 수출환경 악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대 분의 업종에서 증가세 둔화 예상. 다만,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군은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율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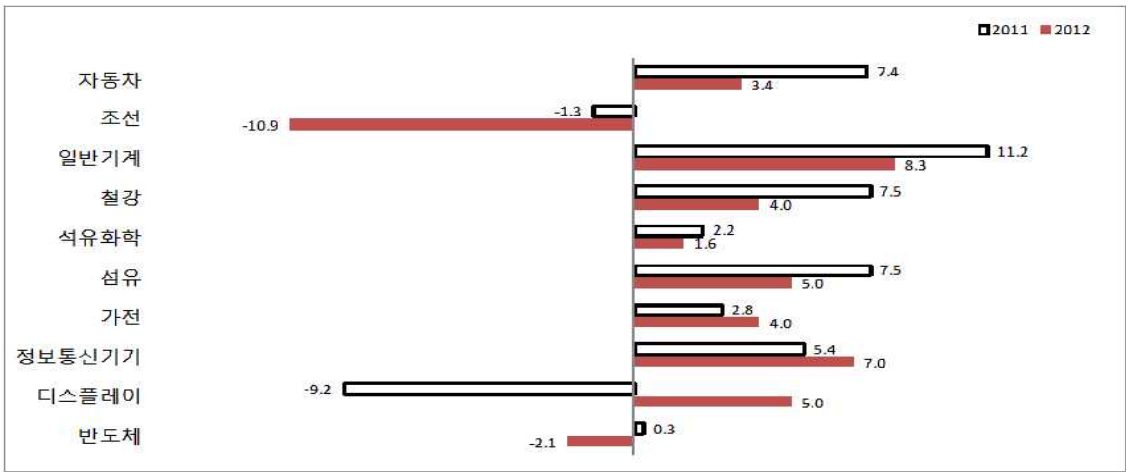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에서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조선은 10% 이상 감소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 IT산업군은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이 5~6% 대의 완만한 상승세, 디스플레이의 감소세 탈출이 예상되나,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는 전년의 제로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악화 예상

**<그림 3> 2012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 10대 주력업종 수입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4%의 소폭 증가

○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3.8% 정도 소폭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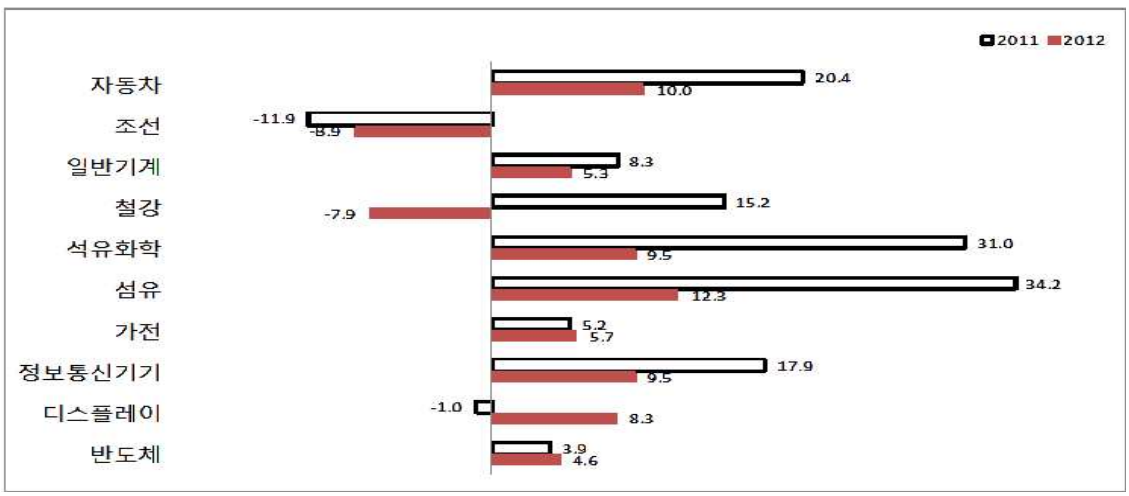
○ IT산업군은 국내 생산이 족한 품의 수입, IT신제품 수요 확대, 해외 생산 제품 및 품의 역수입 증가,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6.5% 증가할 전망

○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첨단장비 도입이 늘어나 서 5% 증가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업종별로 수입수요 편차가 큰 가운데, 수입규모가 큰 철강의 수입 감소로 1% 감소할 전망

**<그림 4> 2012년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 2012년 산업전망 종합

○ 2012년의 10대 주력산업은 세계 시장  진과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주도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4대 비IT 산업이 수출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그 동안 개도권 시장 개척이 성공을 거둔 때문으로, 2012년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선산업으로서 수출, 생산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예상

○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세계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대응 여하에 따라 성장 진폭이 커질 가능성 상존

**<표 2> 2012년 산업전망 기상도**

| | 내수 | 생산 | 수출 | 수입 |
|---|---|---|---|---|
| 자동차 | ☁ | ☁ | ☼☼ | ☼ |
| 조선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
| 철강 | ☁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
| 섬유 | ☁ | ☼ | ☼ | ☼☼ |
| 가전 | ☁ | ☁ | ☼ | ☼ |
| 정보통신기기 | ☼ | ☼ | ☼ | ☼ |
| 디스플레이 | ☼☼ | ☼ | ☼ | ☼ |
| 반도체 | ☼ | 🌧 | 🌧 | ☁ |

주 :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I. 거시경제 전망

##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 □ 2분기 이후 회복세 둔화 추이

○ 국내 실물경기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GDI 성장률 진, 선진권 경기 진의 향 등으로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

* GDP (전기비 %) ('11.1/4) 1.3 → (2/4) 0.9 → (3/4) 0.7

* GDP (전년동기비 %) ('11.1/4) 4.2 → (2/4) 3.4 → (3/4) 3.4

- 유가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 서 실질소득(GDI 및 GNI)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

* GDI (전년동기비 %) ('11.1/4) 1.9 → (2/4) 0.5 → (3/4) 0.6

* GNI (전년동기비 %) ('10.4/4) 3.0→ ('11.1/4) 1.8 → (2/4) 0.6

- 선진권 경기 진이 대선진권 수출 진으로 나타나 서 수출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이

*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
('11.2/4) 18.7→ (7월) 21.7→ (8월) 25.9→ (9월) 18.8→ (10월)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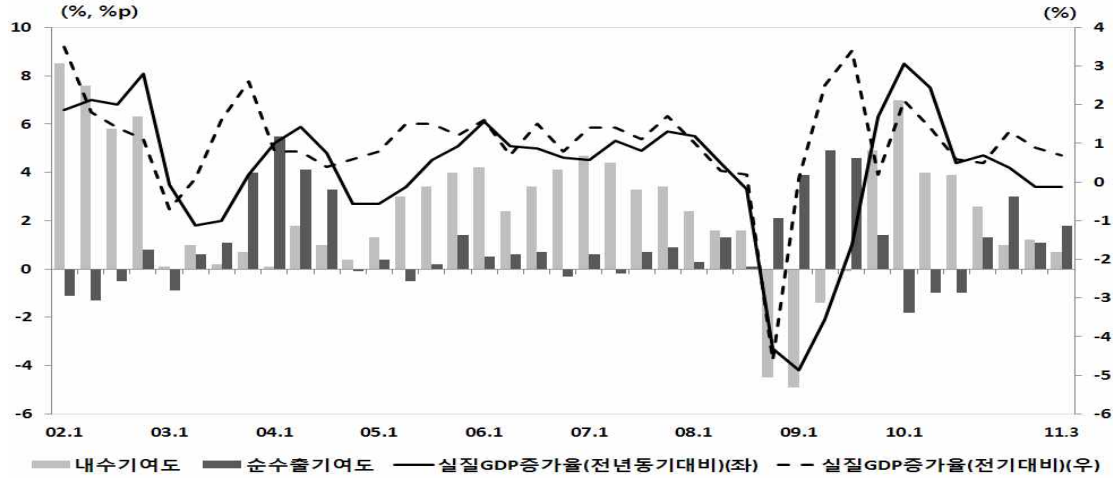
- 내수는 건설투자의 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비 % : 이하 同)
('11.1/4) 2.8 → (2/4) 3.0 → (3/4) 2.2

* 설비투자 증가율(%)
('11.1/4) 11.7 → (2/4) 7.5 → (3/4) 1.4

* 건설투자 증가율(%)
('11.1/4) -11.9 → (2/4) -6.8 → (3/4) -4.2

<그림 Ⅰ-1> GDP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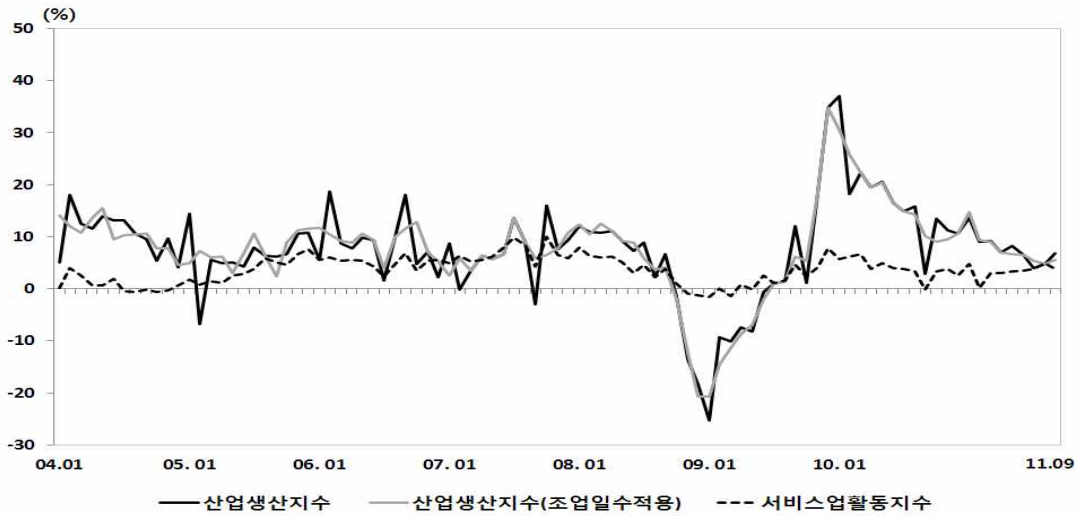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산업생산도 광공업과 서비스 모두 증가세 둔화 추이

* 전산업생산지수(전월비) : 0.6%(2Q)→-1.6%(7월)→-0.2%(8월)→-0.1%(9월)
* 광공업생산(전월비) : 0.0%(2Q)→-0.4%(7월)→-1.9%(8월)→1.1%(9월)
* 서비스활동(전월비) : 1.0%(2Q)→0.4%(7월)→0.5%(8월)→-1.6%(9월)

<그림 Ⅰ-2> 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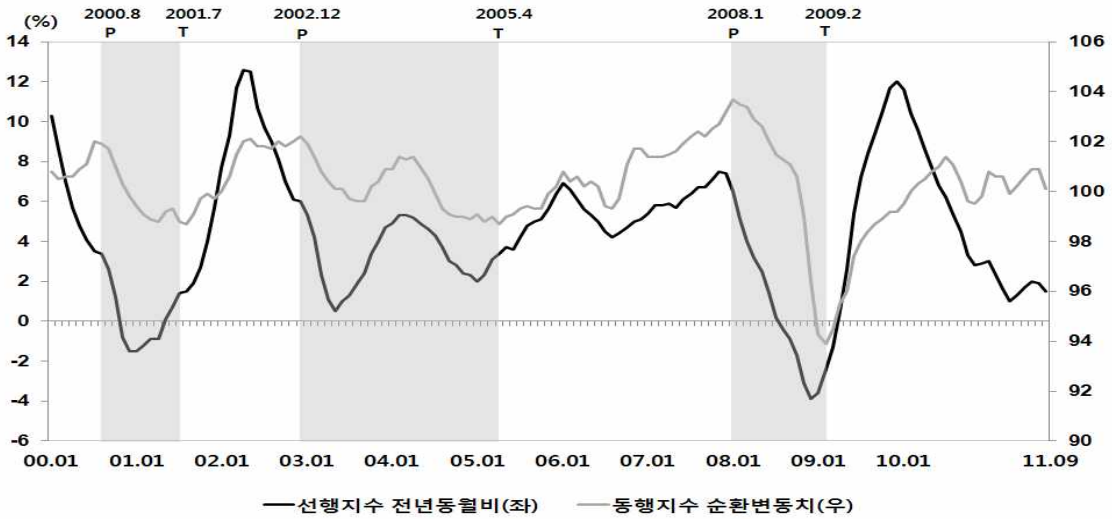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선행지표 추이나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

* 선행지수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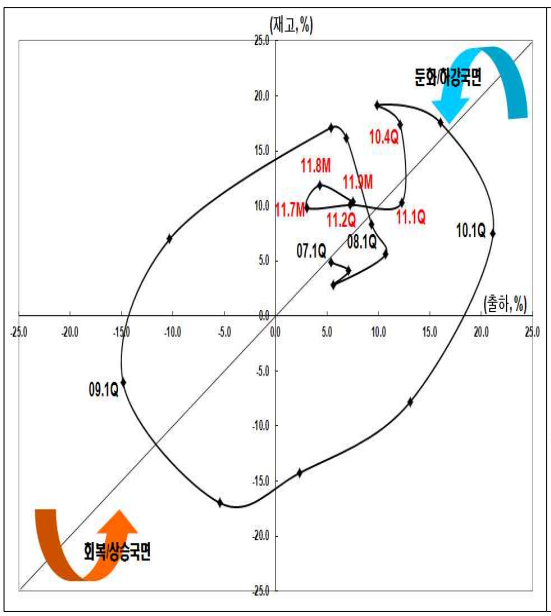
('11.6월) 1.7→ (7월) 2.0→ (8월) 1.9→ (9월) 1.5

<그림 Ⅰ-3>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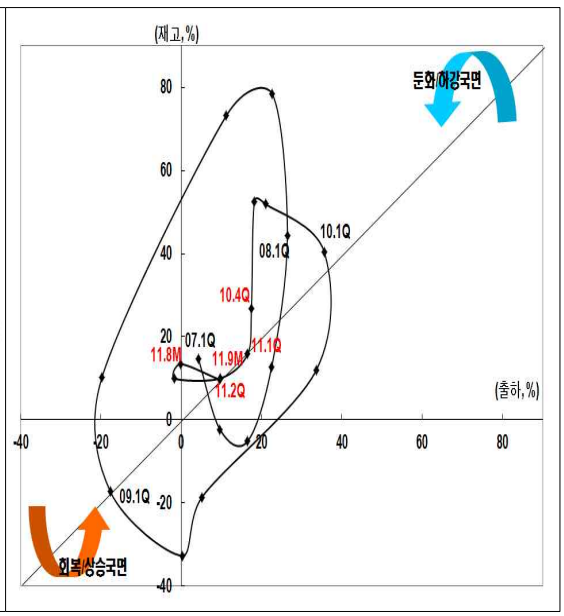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Ⅰ-4>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그림 Ⅰ-5> 제조업ICT 재고-출하순환



## 2. 대외여건 전망

### □ 세계경제 : 선진권 부진으로 성장 둔화

○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온 세계경제는 최근 선진권의 재정위기 등이 각되 서 뚜렷이 둔화되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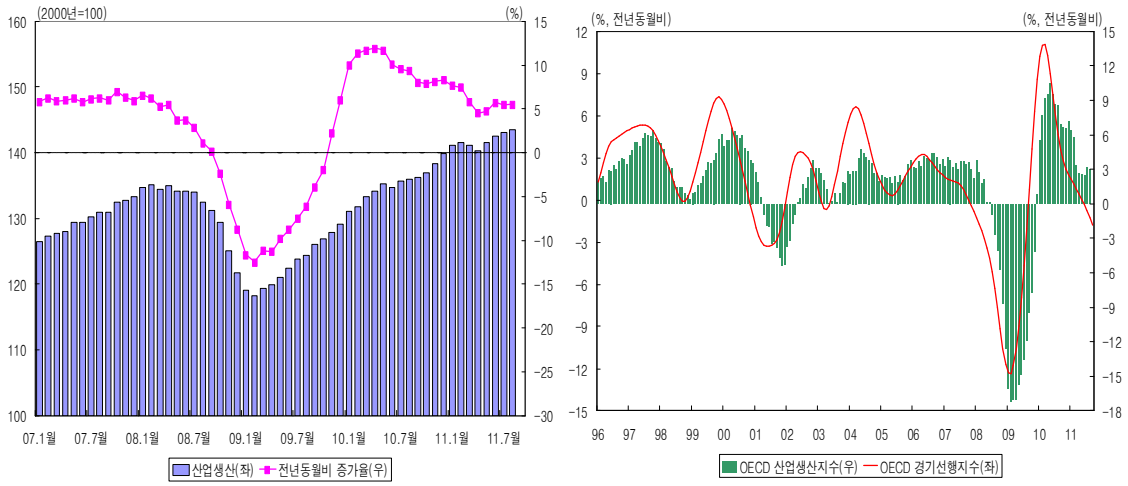
- 연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세와 인플레 우려 등으로 인해 긴축으로의 정책 선회가 확산되고, 3월 동일본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여파로 일본경기가 급락하 서 세계 실물경기가 둔화

-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조치(8월)에 이어 유로권 재정위기가 다시 주목 받으 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

-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6~9월중 4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하락세가 이어지 서 세계경기가 둔화국 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 Ⅰ-6> 세계경제 관련 지표 추이**

(a) 세계 산업생산지수 (b) OECD 경기지표




자료 : CPB; OECD.

○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재정불안에서 비롯된  진이 지속되고 신흥권도 성장세가 둔화되  서 대체로  진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

- IMF는 선진권의  진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권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  서 금년과 2012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4.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

**<표 Ⅰ-1>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 구 분 | 2010 | | | | | 2011 | | | | 2012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연간(f) | |
| 세 계 | | | | | 5.1 | | | | 4.0 | 4.0 |
| 선진권 | 2.5 | 3.3 | 3.3 | 3.0 | 3.1 | 2.4 | 1.6 | - | 1.6 | 1.9 |
| 미 국 | 2.2 (3.9) | 3.3 (3.8) | 3.5 (2.5) | 3.1 (2.3) | 3.0 | 2.2 (0.4) | 1.6 (1.3) | 1.6 (2.5) | 1.5 | 1.8 |
| 일 본 | 5.7 | 3.1 | 5.0 | 2.2 | 4.0 | -1.0 | -1.1 | 0.0 | -0.5 | 2.3 |
| 유 로 | 0.8 | 2.0 | 2.0 | 2.0 | 1.8 | 2.4 | 1.6 | 1.4 | 1.6 | 1.1 |
| 개도권 | | | | | 7.3 | | | | 6.4 | 6.1 |
| 중 국 | 11.9 | 10.3 | 9.6 | 9.8 | 10.4 | 9.7 | 9.5 | 9.1 | 9.5 | 9.0 |
| 세계교역 | | | | | 12.8 | | | | 7.5 | 5.8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월) 등

- 재정악화에 따라 선진권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유로권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유로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선진권은 내년까지  진이 지속될 전망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2008,9년과 같은 세계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은 선진권  진의  향, 물가불안 등으로 최근의 성장둔화추이가 이어지  서 9% 내외의 성장을 보일 전망

- 유가 안정에 힘입어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들의 경기연착륙 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측

## □ 유가 : 세계경기 부진으로 소폭 하락 전망

○ 국제 유가는 연초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  서 4월까지 급등한 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문제와 세계 실물경기의 둔화 우려로 하락세

- 연초 중동 국가들(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정정 불안 여파로 유가는 지난 5월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20달러 수준까지 급등, 이후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각되  서 하락세로 전환

- 연간 유가의 변동 범위는 지난해 배럴당 65~95달러에서 올 들어서는 유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80~126달러로 크게 확대

**<표 Ⅰ-2> 국제 유가 추이**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

| 구 분 | 2009년 | 2010년 | | | 2011년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평균 | 상반기 | 하반기 | 연평균 |
| WTI | 61.8<br>(-38.0) | 78.3<br>(52.3) | 80.6<br>(11.9) | 79.5<br>(28.5) | 98.4<br>(25.7) | 88.8<br>(10.2) | 94.6<br>(19.0) |
| Brent | 61.8<br>(-36.6) | 77.5<br>(49.6) | 82.0<br>(14.8) | 79.8<br>(29.3) | 111.4<br>(43.7) | 111.8<br>(36.4) | 111.5<br>(39.8) |
| Dubai | 61.7<br>(-34.1) | 77.0<br>(48.8) | 79.3<br>(10.7) | 78.2<br>(26.5) | 105.6<br>(37.1) | 106.1<br>(33.8) | 105.8<br>(35.4)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2011년 하반기와 연평균은 2011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

○ 2012년 국제 유가는 올해 연초 중동 변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 세계경기  진을 반  하여 보합 내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단기적인 유가 변동의 주요 변수로는 유로권 재정위기 사태 전개와 미 달러화의 향방, 중동 정세 변화 등

- 본 전망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2012년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약 106~107달러(전년비 약 0.5% 하락)로 예상

### <표 Ⅰ-3> 주요기관의 2012년 국제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

| 유종 | WTI | | | Brent | | | Dubai | 3대평균 |
|---|---|---|---|---|---|---|---|---|
| 전망기관 | EIA | PIRA | CERA[1)] | PIRA | CERA[1)] | CGES[2)] | CERA[1)] | IMF |
| 전망시점 | 10.12 | 9.23 | 10.14 | 9.23 | 10.14 | 9.19 | 10.14 | 9.20 |
| 2011년 | 92.36 | 92.55 | 91.52 | 112.30 | 109.44 | 114.70 | 104.33 | 103.20 |
| 2012년<br>(상승률) | 88.00<br>(-4.7) | 89.65<br>(-3.1) | 88.60<br>(-3.2) | 108.65<br>(-3.3) | 104.60<br>(-4.4) | 101.90<br>(-11.2) | 101.31<br>(-2.9) | 100.00<br>(-3.1) |

자료 : EIA; PIRA; CERA; CGES; IMF.

주 : 1) 시나리오별 전망치의 수정값 2) 기준유가 시나리오 전망

### <표 Ⅰ-4> 2012년 국제 원유가 전망 (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 구 분 | 2011년 | | | 2012년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Dubai유 | 105.6<br>(37.1) | 108.5<br>(36.9) | 107.0<br>(37.0) | 104.0<br>(-1.5) | 109.0<br>(2.7) | 106.5<br>(-0.5) |

주 : 1) 하반기와 연간은 2011년 10월 현재까지의 기준.

2) ( )는 각각 전기비 및 전년대비 기준.

## □ 환율 : 하락기조속 높은 변동성 예상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하락기조에서 8월초 유로권 재정위기가 각되 서 급등세를 보인후 최근 다시 하락하는 추이

- 8월 이후의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美달러화 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 강화되어 급등락의 변동성은 상존

  * 1,126.5원 (연초 1.3일) → 1,121.0원 (11.8일), 0.4% 하락

  * 1,050.0원 (연저점 7.27일) → 1,121.0원 (11.8일), 6.7% 상승

  * 1,195.8원 (연고점 9.26일) → 1,121.0원 (11.8일), 6.2% 하락